

# 언론의 정치 성향과 프레임

‘이해찬 골프’와 ‘최연희 성추행’ 사건의 보도를 중심으로

김정아\*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채 백\*\*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이 논문은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사건에 대한 보도 프레임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지난 2006년 비슷한 시기에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이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 즉 이해찬 골프 사건과 최연희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각기 정치 성향을 달리하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보도 및 의견 기사를 대상으로 엔트만 (Entman, 1993)의 분석틀을 사용해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먼저 이해찬 골프 사건 기사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이를 정치문제화하는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한겨레』는 탈정치화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로비 골프로 규정하는 프레임을 사용해 진단하였다. 또한 『조선일보』가 부도덕성 프레임을 사용한 반면 『한겨레』는 인간적 실수로 규정하였다. 해결책으로는 『조선일보』가 이해찬의 사퇴를 주장하는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최연희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한겨레』가 이 사건을 정치적 문제로 규정하였고 『조선일보』는 반대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돌리는 보도태도를 보여주었다.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한겨레』는 가해자 개인이 문제라고 보도하였으나 『조선일보』는 사회책임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도덕적 평가는 『한겨레』가 부도덕성을 강조한 반면 『조선일보』는 인간적 실수로 규정하였다. 해결책으로는 『한겨레』가 최연희의 사퇴를 주장하는 프레임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두 신문은 비슷한 성격의 사건에 대해서 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매우 대조적인 프레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뉴스 프레임, 신문, 정치 커뮤니케이션, 정치 성향, 조선일보, 한겨레

---

\* jungah@pusan.ac.kr

\*\* bchae@pusan.ac.kr

## 1. 서론

### 1) 문제의 제기

뉴스는 사회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외부 세계의 현실을 인지하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한다. 흔히 뉴스는 현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뉴스는 게이트키퍼 과정을 통해 선별적으로 선택되고 배제되며 강조와 해석 등의 가공이 이뤄진다고 밝히면서, 언론이 다루는 사건은 뉴스가 강조하는 프레임에 따라 객관적 현실은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고 여러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Entman, 1993; Gitlin, 1980; Pan & Kosicki, 1993; Tuchman, 1978 등). 특히 뉴스의 담론은 특정한 시각에 의해 생산되고 대부분의 담론은 주류 권력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게 된다(김훈순, 2004, 64쪽).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언론매체가 한국 정치 문화의 중개자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언론이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문제 중의 하나이다. 김준철(2002, 22쪽)에 따르면 정치권력은 뉴스의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언론은 그들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결국 권력집단은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나 결정을 일반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자연스럽게 마련되는 셈이다. 따라서 언론은 직접적인 통제 없이도 정치권력의 의사를 대변하고 그 이익을 보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한국사회는 보수와 진보 언론이 보여주는 대립적 입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예컨대 지금까지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각각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신문으로 같은 사건이더라도 서로 다른 정치 성향과 이데올로기를 보이고 있다. 백선기(1997, 55쪽)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정치 이념적으로 ‘보수주의’를 지향하고 ‘남북관계’에서는 ‘반공주의’, ‘반주체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 이념적으로는 ‘실물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신문이라고 말한다.

반대로 『한겨레』는 정치 이념적으로 ‘진보’를 표방하고 ‘남북관계’에서는 ‘점진적 통일주의’를 지향하며 경제 이념적으로 ‘실명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진보적·혁신적 경향을 띠는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대안적이고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신문이라 설명한다. 또한 임동욱(2003)은 북한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보수적인 입장을, 『한겨레』, 『경향신문』, 『대한매일』은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말한다.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최근 들어 정치지형의 변화와 함께 다소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기존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의 이념적 지형은 대체로 대북정책에 대한 시각 차이에 있다는 점을 미뤄본다면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각각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신문이라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두 신문의 정치적 보도태도를 분석해봄으로써 과연 한국 언론은 보수와 진보의 성격에 따라 같은 사건을 얼마나 상이하게 구성하고 있는지 그 대립적 입장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언론은 현실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것이 지니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뉴스 프레임 분석을 시도한다.

지난 2006년 비슷한 시기에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이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그해 3월 벌어진 이해찬 총리의 ‘3·1절 골프파문’ 사건과 같은 해 2월 최연희 의원의 ‘동아일보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이하 이해찬 골프 사건, 최연희 성추행 사건이라 줄임). 두 사건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여야의 대립적인 사건으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세력간의 대결과 마찰 등은 언론의 효과적인 공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두 사례를 뉴스 프레임 분석 방법을 통해 비교해 본다면 정치적 입장에 따른 언론의 현실구성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두 사건은 ‘골프’와 ‘성추행’이라는 다소 차별적인 사건을 대상으로 해 비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정치인이 관련된 정치적 스캔들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두 사건 모두 주인공이 고위 공직에 있으면서 직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에서 윤리적인 측면이 문제가 되어 스캔들로 비화되었다는 점, 또한 두 사건은 시기적으로 거의 유사한

기간에 진행되었고 각기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이 주인공이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좀 더 명확하게 언론의 성격을 대비시켜 비교함으로써 그 특징을 고찰하기에 적합한 소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해찬 골프와 최연희 성추행 사건을 대상으로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는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과연 두 사건을 각각 어떠한 구조로 현실 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두 사건에 대해 언론에서 주로 사용한 프레임의 유형 등을 기사의 내용 분석을 통해 알아본 후 두 사건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언론이 가지는 정치 성향과의 관계를 알아보려한다.

신문의 보수와 진보 성향에 따라 언론이 현실을 상이하게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는 매매춘과 학생운동, 언론개혁, 의약분업, 9·11 테러참사, 식품안전보도, 유전자 연구, 핵 폐기장 유치,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등 사회 갈등 이슈나 특정한 사회문제를 다루는 이슈 중 하나를 대상으로 언론들이 어떠한 프레임을 사용해 현실을 달리 구성하고 있는지를 비교 설명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김선남, 2002; 김수정·조은희, 2005; 김정현, 2001; 나미수, 2004; 박경숙, 2002; 박선희, 2001; 박성희, 2006; 양정혜, 2001; 원만해·채 백, 2007; 유세경·김미라, 2002; 이귀옥·박조원, 2006; 정재철, 2001/2004; 최낙진, 2004 등).

하지만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여야의 입장차이가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면서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이해찬 골프와 최연희 성추행이라는 두 개의 사회적 이슈를 대상으로 언론의 정치 성향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신문들의 대립구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대립적인 입장을 띠는 두 사건을 우리 언론이 얼마나 상이하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본 실증적인 연구라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2) 이해찬 골프와 최연희 성추행 사건의 전개 과정<sup>1)</sup>

철도파업 첫날이자 3·1절인 2006년 3월 1일 오전 9시 30분 이해찬 국무총리는 부산 기장군 아시아드 컨트리클럽에서 지역 상공인들과 2개조로 나눠 골프를 쳤다. 이 사실은 3·1절보다 ‘철도파업 첫날’이라는 시점 때문에 비난의 화살이 모아졌다. 더구나 3·1절 골프가 단순한 지역 상공인과의 라운딩이 아닌 불법 정치자금 연루자까지 포함된 ‘부적절한 동반자’ 논란으로 이 총리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한나라당은 이 총리가 ‘사실상 범법자들과 골프를 친 것’이라고 맹비난하며 노 대통령에게 이 총리의 해임을 촉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도 이 총리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갔다. 이 총리는 거취문제를 고민한 끝에 2006년 3월 4일 저녁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대국민사과 표명 계획과 거취에 대한 입장을 보고하면서 사실상 사의를 표명하였다. 그 후 2006년 3월 15일 이 총리는 ‘골프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식적으로 물러났다.

다음으로 최연희 성추행 사건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자. 2006년 2월 24일 오후 8시부터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들은 간담회를 겸해 저녁식사를 함께하였다. 이들은 오후 10시 10분쯤 같은 음식점 안에 마련된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여기서 최연희 의원은 옆자리에 앉아 있던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하였다. 동아일보는 한나라당 측에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2006년 2월 27일 최 의원은 한나라당 사무총장 직을 사퇴하고 같은 날 한나라당을 탈당하였다. 그러나 국민들과 야당은 최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소속 당이었던 한나라당까지 압력을 주었지만 최 의원은 2006년 3월 24일 의원 사퇴요구를 거부하며 ‘법에 따르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후 한동안 공식 활동을 중단했던 최 의원은 2006년 7월 14일 강원도 도정협의회 정기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공식 행보를 재개하였다. 그 후 서울고등법원은 2007년 6월 1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던 1심

1) 『연합뉴스』의 ‘이해찬 총리 3·1절 골프파문 전말’(2006. 3. 5)과 ‘최연희 전 총장 여자 성추행 전말’(2006. 2. 27)의 두 기사를 바탕으로 각각 재구성하였음.

형량을 벌금 500만 원으로 줄였고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 2. 프레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프레임의 개념

프레임 연구에서 사회적 현실은 단순히 세계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인간의 지속적인 해석 과정을 통해 구성된 현실이라는 점을 강조한다(양승목, 1997, 8쪽). 구성주의적 접근에서는 뉴스 역시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실일 뿐 아니라 현실을 사회적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본다(양승목, 1997, 13쪽). 이러한 현실 구성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프레임으로써, 언론이 제시하는 프레임에 따라 수용자들이 대상에 대한 의미 부여가 다르게 이루어져 사회적 현실 또한 상이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프레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아이엔거는 프레임을 판단과 선택의 문제를 표현하고 제시하는 데 있어서 미묘한 변경들이라고 정의하였다(Iyengar, 1991, p. 11). 그에 따르면 프레임이란 주제에 따라 판단과 선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 결과물인 보도 또한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기틀린 역시 프레임이란 사회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부분을 선택하고 강조하며 또 다른 부분은 배제함으로써 뉴스의 상징을 조작하고 언어적 담론을 변형시킨다고 설명하였다(Gitlin, 1980, p. 7). 즉 언론이 사회 현실을 보도하면서 특정 측면을 선택, 강조하고 나머지 측면을 배제함으로써 사회의 상징적 현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프레임은 특정 이슈나 사건에 대한 견해를 구성하게 된다. 갠슨과 모디글리아니는 프레임을 특정한 이슈와 관련된 사건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중심적 견해로 파악하였다(Gamson & Modigliani, 1989, p. 3). 프레임에 의해 이슈나 사건에 대한 인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견해를 형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고프만(Goffman, 1974)은 사건에 대한 설명과 인식은 반드시 프레임에 의해 제한되고 키(key)를 통해 변형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프레임은 사회적인 사건에 개입하는 우리의 주관성과 사건을 지배하는 조직화의 원칙에 의해 구축되는 상황으로 사용자들이 구체적인 사건을 위치시키고 인식하며 확인해 이름을 붙이는 해석의 스키마라고 할 수 있다(Goffman, 1974, pp. 10~21).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실을 재구성하는 미디어 프레임은 현실의 특정한 부분만을 선택해 강조하거나 어떠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게 된다. 즉 뉴스라는 창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는 이 창문이 뚫려 있는 방향과 위치 그리고 창문의 크기에 따라 실제 정치에 대한 인식은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Tuchman, 1978, p. 1).

## 2) 미디어의 프레임 구축

사회적 현실은 언론의 ‘틀’에 의해 구성된다는 전제 아래 지금까지 뉴스 프레임 텍스트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 연구들을 종합하면 현대 언론에서 나타나는 프레임의 경향은 크게 네 가지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특정 이슈나 사건에 대해 언론들은 정형화된 프레임을 주로 사용한다. 예컨대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등에 대해 언론은 매우 정형화된 틀로서 보도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인 연구 결과로는 1960년대 미국 대학생들의 신좌익운동(New Left)에 대한 뉴스 보도태도를 분석한 기틀린(Gidlin, 1980)의 연구나 미국 캔자스 주의 낙태 반대 운동보도에 관한 뉴스 프레임을 분석한 팬과 코시키(Pan & Kosicky, 1993)의 연구 등이 있다.

두 번째로는 동일한 이슈에 대해서도 매체에 따라 다른 프레임이 사용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언론개혁 이슈를 대상으로 한 박선희(2001)의 연구는 언론개혁에 반대하는 주류 인터넷 신문은 정부의 언론개혁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의혹 프레임을, 언론개혁을 찬성하는 인터넷 신문은 언론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필요성 프레임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보도를 대상으로 한 원만해·채백(2007)의 중앙지와 지역지가 다른 프레임으로 보도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같은 사안이나 사건에 대해서도 특정 매체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관계 및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언론은 서로 다른 프레임을 사용해 상이하게 해석하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동일한 이슈에 대해 국가 간에 차별적인 프레임이 나타나기도 한다. 9·11 테러와 아프간 공습 사건을 대상으로 미국, 한국, 중국의 일간지를 비교분석한 유세경·김미라(2002)의 연구나 배이즐기세포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보도 기사를 프레임 분석한 김수정·조은희(2005)의 연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연구들에 의하면 각 나라의 언론은 자국의 이데올로기와 외교적 이해관계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서로 다른 뉴스 프레임을 사용해 현실을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성격의 사건에 대해 상반된 프레임을 사용하기도 한다. 구소련의 KAL기 격추사건과 미국의 이란 여객기 격추사건을 대상으로 미국 언론의 프레임을 비교 분석한 엔트만(Entman, 1991)의 연구는 KAL기 격추사건은 행위자로서 구소련을 부각시키고 희생자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표지 그래픽과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국제적인 비난 여론을 이끌어냈다. 이에 반해 미국의 이란 여객기 격추사건의 경우는 수동태를 사용해 행위자로서의 미국을 은폐하고 단순한 기술적 실수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바인더(Binder, 1993)는 대중음악의 가사 내용에 주목해 헤비메탈과 랩 음악의 유해성 논쟁에 대해 언론의 차별적인 프레임 양식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두 장르의 기사들이 모두 성적 내용과 기존 권위에 대한 반항을 담고 있지만 백인 청소년들이 열중한 헤비메탈에 대해서는 개인적 타락과 보호 프레임이 적용된 반면 흑인 청소년들의 랩 음악은 사회적 위협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언론은 서로 유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립적인 프레임을 선택해 적용함으로써 갈등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논의를 왜곡시키고 배제하며 조직적으로 지배 이데올로기와 기존 질서를 옹호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안에 따라서, 혹은 매체에 따라서 프레임이 다르게 나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언론이 특정 이슈를 틀 짓는 데는 사회적 규범과 가치, 미디어 조직의 압력과 제한, 이익 집단의 압력, 언론의 관행, 그리고 언론인의 이데올로기 또는 정치 성향이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Shoemaker & Reese, 1996). 이러한 요인들에 따라 미디어의 프레임 구축에 영향을 주는, 즉 뉴스 프레임을 구성하고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쇼펠레(Scheufele, 1999, p. 115)는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먼저 언론인의 영향이다. 직접적인 뉴스 생산자인 언론인은 자신의 성격, 배경, 경험, 가치, 신념, 역할, 정치적 태도, 이데올로기 등의 내적 요인들과 전문가의 규범 등에 의존해 이슈에 대한 프레임을 제시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둘째, 언론조직의 형태나 언론의 정치 성향 등도 프레임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슈메이커와 리즈(Shoemaker & Reese, 1996)는 뉴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론조직의 제작관행과 언론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그들은 뉴스에 영향을 미치는 제작관행으로 게이트키퍼와 정보원, 뉴스 가치에 따른 뉴스의 구성 방식 등을 들었다. 김원용·이동훈(2004, 356쪽) 또한 언론 조직 차원의 요인으로 조직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 성향, 조직의 사회적·문화적 속성과 구조 등이 포함된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은 언론조직 외부로부터의 요인으로 언론 간의 경쟁, 광고주의 영향, 정부의 규제와 간섭, 이익집단과 엘리트집단의 압력, 사회 문화 규범과 도덕적 가치 등이 뉴스 프레임을 구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이다. 특히 정부 관련 사건이나 정치 관련 이슈를 다룬 보도에서는 정치적 압력이 뉴스의 선택과 취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정치적 압력과 소속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이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따라 프레임이 달리 형성될 수 있다 (Alger, 1989).

이와 같이 뉴스 프레임을 구축하는 과정은 단순히 언론인의 개인적인 차원과 언론 조직의 문제를 넘어서 조직 외부의 사회적인 압력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언론 조직의 외부적 요인 중의 하나인 정치권력은 언론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미디어 프레임을 도구로 사용해 미디어 메시지를 조직화하고 공중의 정치현실에 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왜곡시키고 변형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듯 미디어 프레임은 특정 이슈가 가지는 본래의 정치적 의미를 왜곡하거나 그것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쟁점에 대한 국민의 정치참여를 방해하는 반면, 또 다른 프레임은 기존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지배적 가치에 균열을 일으켜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그 쟁점에 대한 국민적 참여의 폭을 확장시킬 수도 있다(박승관·주용범, 1995, 110쪽).

프레임의 개념을 하나의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연구로서 이론화를 시도한 엔트만(Entman, 1993)에 의하면 뉴스 프레임이란 선택(selection)과 현저성(salience)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수반하며 뉴스에서는 현실의 특정한 몇 가지 관점들이 선택되고 텍스트에서 보다 두드러지며 유의미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프레임이란 인지된 현실의 특정한 측면을 선택해 문제를 정의하고 원인을 진단하며 도덕적 평가를 내린 뒤 그 문제에 대한 처방과 해결의 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이다(Entman, 1993, p. 52). 실제로 프레임이란 미디어 텍스트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기술할 때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 특히 엔트만의 프레임 개념은 특정한 단어나 시각적 이미지가 뉴스 내러티브에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강조됨으로서 텍스트 속에 일관된 관점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나미수, 2004, 5쪽) 프레임 규명에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도 엔트만(Entman, 1993)이 제시한 프레임 개념을 기반으로 이해찬 골프와 최연희 성추행 사건에 나타난 주요 프레임을 확인해 뉴스 보도가 해당 이슈를 어떤 시각에서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지금까지 사용됐던 기존의 내용 분석 방법은 텍스트 내용을 긍정적인 용어와 부정적인 용어로 분류하고 합산해 지배적인 의미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어서 텍스트의 현저성(salience)을 고려하지 못하고 가장 현저한 프레임과 수용자의 스키마와의 관계를 간과해 왔다. 그러나 프레임 분석은 이와 달리 실제로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뉴스의 이야기 구성방식과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유세경·김미라, 2002, 172쪽).

본 연구의 대상인 이해찬 골프와 최연희 성추행 사건은 여야의 정치인이

물의를 일으킨 대립적인 사건으로 언론의 정치 성향, 언론간의 경쟁, 정치인, 정부, 이익집단의 압력 등 여러 요인이 언론의 프레임 구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각 정당의 정책과 정치인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회지도층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전제로 뉴스를 구성해 나갈 뿐만 아니라 자사의 정치 성향에 맞게 상이한 뉴스 프레임을 통해 현실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는 언론이 추구하는 정치 성향에 따라 미디어 프레임은 달리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해당 언론은 똑같은 사회적 이슈라도 자사의 입장과 부합하게 현실을 구성하려 할 것이고 이로 인한 여야의 대립 구도적 논쟁 또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정치인을 둘러싼 여야 대립적인 사회적 이슈를 한국 언론은 과연 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어떠한 프레임을 사용해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지 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언론이 추구하는 정치 성향에 따라 현실이 얼마나 상이하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 3. 연구문제와 방법

#### 1) 연구문제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언론은 두 사건을 어떻게 구성하고 사건의 책임 소재와 해결책 등을 어디에 두는지 뉴스 프레임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이해찬 골프 사건에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프레임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최연희 성추행 사건에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프레임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2) 연구방법

여야 대립적인 사건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언론의 담론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2006년 3월 비슷한 시기에 보도된 이해찬 골프와 최연희 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기사들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한다. 스트레이트와 기획·연재, 좌담, 사설, 칼럼·논단, 해설 등 두 사건에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모든 유형의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페이지(Page, 1996)의 연구 결과에 따라 외부 칼럼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는 걸프전 당시 각 신문은 자사 논조와 다른 외부 기사는 게재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그 예로 『뉴욕 타임스』의 경우 칼럼과 논단 등 모든 외부 기사에서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칼럼과 논단 등 외부기고 기사도 언론사의 논조가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분석 기간은 두 사건이 각각 처음 보도된 날짜부터 해당 관련 기사가 나타나는 시기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최연희 성추행 사건은 2006년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이해찬 골프 사건은 2006년 3월 3일부터 3월 30일까지로 두 사건 모두 약 한 달의 기간이 설정되었다. 왜냐하면 같은 해 3월 24일 노 대통령은 이 총리의 사의를 수용해 한명숙 의원을 총리후보로 지명하였고 정부는 3월 31일 한명숙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3월 30일 이후에는 한명숙 국무총리와 관련한 기사가 현저히 증가하면서 이해찬 골프와 최연희 성추행 사건의 관련 보도는 자연스럽게 지면에서 사라지게 됨으로써 이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삼았다.

<표 1>에서 보면 이해찬 골프 사건의 경우 2006년 3월 3일 기사가 처음 보도된 이후 둘째 주와 셋째 주에 가장 많은 기사량을 보이다 3월 15일 그의 사퇴를 기점으로 넷째 주부터는 기사량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최연희 성추행 사건은 2006년 2월 28일 처음 사건이 보도된 첫째 주에 가장 많은 기사량을 보이다 이해찬 총리가 사퇴를 함으로써 최연희 의원의 사퇴문제도 다시 한번 제기되어 셋째 주의 기사량이 또 다시 늘어났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뉴스 기사 표집은 한국 언론재단의 카인즈를

<표 1> 기사의 유형과 시기에 따른 기사 수 비교  
단위: 건수, ( )는 %

	이해찬 골프 사건		최연희 성추행 사건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조선일보	한겨레	
보도 기사	55(67.1)	60(80.0)	18(75.0)	22(51.2)	155(69.2)
의견 기사	27(32.9)	15(20.0)	6(25.0)	21(48.8)	69(30.8)
첫째 주(2. 28~3. 4)	3( 3.7)	3(4.0)	10(41.7)	16(37.2)	32(14.3)
둘째 주(3. 5~3. 11)	44(53.7)	41(54.7)	4(16.7)	8(18.6)	97(43.3)
셋째 주(3. 12~3. 18)	25(30.5)	26(34.7)	6(25.0)	14(32.6)	71(31.7)
넷째 주(3. 19~3. 25)	5(6. 1)	5(6.7)	3(12.5)	4( 9.3)	17( 7.6)
다섯째 주(3. 26~3. 31)	5(6. 1)	-	1( 4.2)	1( 2.3)	7( 3.1)
전체	82(100.0)	75(100.0)	24(100.0)	43(100.0)	224(100.0)

이용하였다. ‘이해찬’, ‘골프’, ‘최연희’, ‘성추행’을 검색 단어로 지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검색된 기사 중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사들을 제외한 모든 기사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기사 건수는 이해찬 골프 사건은 『조선일보』 82건, 『한겨레』 75건으로 총 157건이었고 최연희 성추행 사건은 『조선일보』 24건, 『한겨레』 43건으로 총 67건이었다. 따라서 전체 224건의 기사가 본 연구에서 분석되었다.

해당 분석 기간에 두 사건에 관한 신문별 기사 건수와 기사 유형 역시 <표 1>에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사의 유형을 보도 기사(스트레이트)와 의견 기사(기획·연재, 좌담·대담, 사설, 칼럼·논단, 해설)로 분류하였다. 전체적으로 두 사건과 관련한 뉴스는 보도 기사가 69.2%인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설과 칼럼, 기획·연재, 해설, 기타, 좌담·대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기서 비교적 사건의 심층적인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의견 기사의 비중(총 69건, 30.8%)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의 정치 성향과 두 사건을 비교해 기사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여당 정치인 이해찬 골프사건에 대해서는 『조선일보』(27건, 32.9%)가 『한겨레』(15건, 20.0%)보다 의견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반대로 야당 정치인

최연희 성추행 사건은 『한겨레』(21건, 48.8%)가 『조선일보』(6건, 25.0%)보다 의견 기사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것은 의견 기사를 통해 언론사가 지향하는 정치 성향에 따라 각 사건에 대한 논의를 사회적으로 쟁점화 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연구 과정은 먼저 연구자가 ‘내용 분석’ 방법을 이용해 신문별 기사 건수와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고 그 후 검색된 모든 기사의 표제와 리드, 본문을 읽으며 ‘프레임 분석’ 방법을 통해 최종 프레임을 도출하였다.

엔트만(Entman, 1993)은 프레임이란 현실의 한 측면을 현저하게 부각시켜 특정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나의 뉴스 기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 중 가장 현저하게 부각되는 의미가 한 사건에 대해 내리는 정의와 같다고 보고 텍스트 요소의 현저성, 즉 핵심 주제를 프레임 판별의 기준으로 도입하였다(양정혜, 2001, 297쪽). 그에 따르면 프레임이란 의미전달의 텍스트상에서 어떤 측면은 강조하고 다른 요소들은 무시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특정 측면을 선택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원인을 진단하며 도덕적 평가를 내린 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Entman, 1993, p. 52). 본 연구에서는 그의 분석틀을 이용해 프레임 구성을 네 개의 차원, 즉 문제 정의, 원인 진단, 도덕적 평가, 해결책 제시의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각각의 기사를 대상으로 프레임을 귀납적으로 추출한 뒤 네 개의 차원별로 가장 현저히 두드러지는 프레임을 제시하였다.

프레임 분석은 각 사건과 관련된 개개의 기사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프레임 하나를 발견해 내는 것보다는 분석 초기부터 뉴스 텍스트에서 선택되고 강조된 의미를 중심으로 반복되고 유사한 형태로 묶이는 핵심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전체 기사에서 재현된 프레임들의 구성을 복합적으로 밝혀내는 것이다(김선남, 2002, 56~57쪽). 결국 한 기사에는 프레임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드물긴 했지만 하나의 뉴스에 두 개 이상의 프레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복수 코딩을 실시하였다. 그 후 최종적으로 도출된 뉴스 프레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두 신문이 만들어 가는 정치적 대립 구도를 실증 자료인 의견 기사의 질적 분석을 통해 규명해 보았다.

각각의 기사에서 추출된 프레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를 포함한 3명의 코더가 한 기사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프레임을 제시해 보다 확연하게 프레임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신뢰성을 위해 전체 기사 중 20%<sup>2)</sup>를 무작위로 선택해 살펴본 결과 코더 상호 간의 일치도는 .84이었고 이를 종합적 신뢰도 계수 방법(차배근, 1990, 429~430쪽)<sup>3)</sup>을 사용해 측정 한 결과 .94의 높은 신뢰도 계수가 산출되었다.

### 3) 뉴스 프레임의 생성과 조작적 정의

뉴스 프레임 분석 방법에는 크게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이 있다 (Semetko & Valkenburg, 2000). 먼저 연역적 방법은 사전에 명확히 규정된 프레임을 가지고 뉴스에서 이 프레임이 얼마나 제시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이고 귀납적 방법은 뉴스에 나타나는 프레임들을 모두 드러내기 위해 정형화된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관점에서 가능한 모든 프레임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귀납적 방법은 연역적 방법에 비해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연구결과를 반복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이 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다양한 프레임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강내원, 2002, 12쪽).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귀납적 방법을 활용해 연구자가 모든 기사를 읽으며 가능한 프레임 유형을 추출하였고 이렇게 추출한 프레임을 근거로 프레임 유형을 재분류해 최종 프레임을 작성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일차적으로 전체 분석 기사를 읽으면서 구체적인 프레임을 구축하고 이 틀을 기준으로 프레임을 수정하고 또 다시 유형화시키는 작업을 여러 번에 걸쳐 시행하였다. 그

2) 전체기사 224건 중 신문사별로 사건의 비율을 약 20%로 맞춰 조선일보+이해찬 17건, 조선일보+최연희 6건, 한겨레+이해찬 15건, 한겨레+최연희 9건 등 총 47건을 추출해 일치도를 살펴보았다.

3) 종합적 신뢰도계수 =  $N(\text{분석자 상호 간의 평균일치도})/1 + \{(N-1)(\text{분석자 상호 간의 평균일치도})\}$

후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석사 과정생 두 명에게 두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프레임 유형을 숙지시킨 후 전체 기사를 대상으로 기존의 추출된 프레임 외에 나타날 수 있는 프레임을 다시 한 번 추출하게끔 하였다.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프레임을 도출하였고 이를 전체기사의 개별 뉴스 항목에 적용시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네 개의 차원에서 여덟 개의 프레임을 추출했으며 각각의 프레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 정치문제화 프레임/탈정치화 프레임

정치문제화 프레임은 사건을 해당 정치인의 배경이 되는 정치 세력의 문제로 확대해 의미를 규정하려는 방식의 보도를 말한다. ‘한나라당의 철저한 자성이 필요하다’든지 ‘열린우리당 전체가 문제’라는 식으로 최연희와 이해찬 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서로의 정당 차원의 문제로 묘사하는 경우이다. 그에 반해 탈정치화 프레임은 해당 정치인 개인의 문제인데도 이를 넘어서 서로의 정당과 그 정당 지도자까지 관련 문제를 확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묘사하는 경우이다.

#### (2) 로비 프레임

이해찬 골프 사건과 관련해 함께 라운딩을 했던 인사들과 총리의 부적절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이 모임은 결국 이득을 얻기 위한 로비 골프였다고 기사를 전개하는 경우이다. 총리와 골프를 함께 쳤던 회사들의 고속성장과 주가급등 등을 언급한 기사가 포함된다. ‘골프 의혹’, ‘투자 의혹’, ‘주가조작 의혹’, ‘로비 의혹’, ‘접대 골프’, ‘거래’ 등의 표현이 주로 쓰인다.

#### (3) 사회책임 프레임/개인책임 프레임

최연희 성추행 사건에서 나타나는 프레임으로 사회책임 프레임은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가부장적 문화에 귀인 시키는 보도 내용들이다. 이 유형에서는 주로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와 음주



문화로 인한 문제점과 함께 이 사건의 발생 요인을 남성들의 ‘여성 비하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기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책임 프레임은 가부장제 문화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남성 중심적 의식을 가진 가해자 개인이 더 문제라는 방식의 보도를 말한다.

#### (4) 부도덕성 프레임/ 인간적 실수 프레임

부도덕성 프레임은 사건이 일어난 책임소재를 두 사람의 개인적인 윤리 의식과 도덕성 결여의 문제로 보고 있다. 서로의 부족한 자질을 언급하며 해당 정치인을 ‘성찰 없는 사람’, ‘예의를 결하고 있는 사람’, ‘부적격자’ 등으로 묘사함으로써 사건의 주된 원인을 이해찬과 최연희의 윤리적 차원의 요인으로 돌리는 경우를 말한다. 인간적 실수 프레임은 그들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것은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는 어쩔 수 없는 ‘공인으로서의 실수’로 묘사하며 곤경에 처한 것을 동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5) 사퇴 프레임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이해찬과 최연희 두 사람이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사퇴(유임)를 해야 하는 이유와 상황 그리고 그와 관련해 부수적으로 언급되는 모든 정황 등을 부각시키는 경우이다. ‘유임’, ‘사퇴’, ‘퇴진’, ‘사의’ 등의 표현이 주로 쓰인다.

### 4. 언론의 정치 성향에 따른 프레임 분석

이제부터는 엔트만(Entman, 1993)의 분석틀에 따라 각 차원별로 나타나는 프레임과 의견 기사의 질적 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규명해 보고 두 신문은 각 사건을 어떠한 프레임을 사용해 정치적 대립구조를 형성해 가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이해찬 골프 사건에 대한 프레임 분석

### (1) 문제 정의 프레임 유형

먼저 이해찬 골프 사건을 두 신문이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차원에서는 문제의 정치인과 정치 성향이 다른 신문이 해당 사건에 대해 비판하는 경향이 강했다.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이해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 정권 차원의 문제로 비하시키려는 정치문제화 프레임이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 좋은 소재로 삼고 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의 자질을 비판하는 기사도 적지 않았는데 3월 15일자 3면에 실린 ‘노무현식 정치가 저물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해찬 골프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자체가 퇴조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번 사태는 ‘대권주자 이해찬’의 추락이 아니라 이 총리로 상징되던 ‘노무현식 정치’의 퇴조를 알리는 신호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 (중략) … 이 총리는 ‘차기 주자’가 아니라 ‘실세 총리’로서의 권한을 움켜쥐고 난전의 대리인으로서 악역을 자임해 왔고 마침내 그 난전의 제물이 되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론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장기인 역발상 전략으로 국면을 반전시켜 왔으나 이번에는 그런 카드를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다. 역발상의 기개를 보여주는 어떤 말도, 어떤 제스처도 없었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정치에서 더 이상 통하기 어려워진 ‘노무현식 정치’, 노무현 코드의 퇴조를 읽는다.

이렇듯 ‘이해찬’이라는 정치인의 개인적인 문제를 ‘여당’의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노무현 정권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위의 사례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이해찬 골프 사건을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노무현 정권자체가 기득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골프와 등산은 다르다’ 3. 13, 34면), 노무현 정부도 권력에 길들면 결국 골프 접대를 받으며 타락해 갈 것이라며 총리의 골프와 거짓말 행진을 보면서 노 대통령의 당선 자체를

비판하였다(‘광장서적’ 단골들의 배신감’ 3. 14, 34면). 더 나아가 노무현식 정치는 우리의 현실정치 자체에 맞지 않고 이제는 여당 사람들조차 달가워하지 않는 노 대통령의 1인극이라고까지 언급하며(‘역발상 퀴즈 지겹다’ 3. 13, 35면) 이해찬 개인의 과실을 현 정권의 과실로까지 확대해 비판하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한겨레』는 탈정치화 프레임을 통해 해당 정치인의 개인적 문제를 도를 넘어서 서로의 정당과 그 정당 지도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묘사하고 있었다. 즉 신문과 방송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다투는 모습을 전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은 이보다 시급한 여러 현안들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3월 14일 30면 ‘한-미 FTA 정면으로 달라붙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러한 정쟁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당들의 정치 공략적인 싸움일 뿐이며 오히려 중요한 것은 민중의 생존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 등이 중심주제로 부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3월 15일 23면 ‘총리사임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노 대통령이 총리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여야는 총리 골프 문제를 더는 정치쟁점화 하지 말기를 바란다. …(중략) … 정치권은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유불리만을 따져서 조건반사적으로 정쟁을 벌이지 말고 양극화 해소 방안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정규직 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책임 있게 논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라고 언급하며 더 이상 서로의 정당을 비난하는 비소모적인 행위를 자제하고 국민들을 위한 좀 더 중요한 사안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문제 정의 차원에서 『조선일보』는 정치문제화 프레임을 사용해 자사와 정치 이념적 성향을 달리하는 정치인이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해당 정당과 그 정당의 지도자로서까지 그 문제를 확대해 비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한겨레』는 탈정치화 프레임을 사용해 이 사건을 통해 서로의 정당을 비난하기에 앞서 보다 시급한 민생 현안에 주력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2) 원인 진단 프레임 유형

신문들은 이 사건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조선일보』는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와 함께 라운딩을 했던 인사들이 로비를 위한 골프였다고 규정하는 로비 프레임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선일보』는 3월 8일자 3면부터 5면에 걸쳐 ‘이 총리 골프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어 로비와 주가조작에 관련한 비판적인 입장을 관련 인사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제시하고 있었다(‘주가가 띄워줬나’ 3.8, 3면; ‘류 회장은 안쳤다더니… 거짓말 시리즈’ 3.8, 4면; ‘인생에서 골프는 양보 못해… 그거라도 안하면 숨 못 쉴 것’ 3.8, 5면).

『조선일보』 3월 10일자 34면에 실린 ‘총리와 안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로비 프레임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중앙의 고위직과 안다는 것이 지역의 기업인들에게는 큰 위력을 발휘한다면 “얼마나 많은 이 총리의 골프 파트너들이 이 총리와 골프를 하였다는 것을 무기로 활용했을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면 정말이지 끔찍하다. 부적절한 동반자와 이 총리 골프가 부산 상공인 정도로 그쳤으면 하는 심정이다. 총리라는 자리는 분명 엄청난 값이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더 나아가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로비가 주목적이었던 ‘골프 게이트’라고 규정하였다. 3월 9일 31면의 ‘검찰이 공제회의 상식 밖 투자 수사해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골프를 친 당사자들에게 물어 보니 ‘로비는 없었다더라’는 식의 청와대 민정팀의 곁팔기 수사로는 국민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없다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 ‘3·1절 골프 게이트’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겨레』에서는 특정 프레임을 찾아내기는 어려웠지만 『조선일보』와는 반대되는 입장의 기사가 많았다. 이 사건의 원인을 로비의 대상이 되는 고위 정치인이 문제가 아니라 로비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3월 9일 26면 ‘줄서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권력의 행사 범위가 커수록 온갖 연줄을 통해 접근해 오는 각종 로비스트들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방어벽을 철저히 깔아놓지 않으면 언제 무슨 뒷에

걸려들지 알 수가 없다”며 이해찬을 두둔하는 내용을 신고 있었다.

이처럼 원인 진단 차원에서도 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보도는 비판적이거나 우호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일보』는 로비 프레임 사용해 이 사건의 원인을 로비라고 규정한 반면 『한겨레』는 명확한 프레임이 도출되지는 않았으나 『조선일보』와는 다른 보도태도를 보여 주었다. 이렇듯 언론은 정치 성향에 따라 원인 진단에서도 상이한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3) 도덕적 평가 프레임 유형

이 사건을 도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조선일보』는 부도덕성 프레임을 통해 그의 행위를 비난하고 있었고 『한겨레』는 인간적 실수 프레임을 사용해 그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조선일보』는 부도덕성 프레임을 통해 훨씬 노골적이고 원색적으로 이해찬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이해찬 골프 사건에서 그를 ‘수신(修身)없이 ‘치국(治國)에 나섰던 총리의 행위를 ‘멋대로의 경지’, ‘갈 데까지 간 셈’이라고 표현하며(‘수신(修身)없이 치국(治國)에 나섰던 총리의 뒤끝’ 3. 6, 31면) 원색적으로 비난하였고, ‘재주만 많고 덕이 부족한 총리’로 묘사(‘이해찬 이후(以後) 설계하려면 이해찬 문제를 돌아보라’ 3. 15, 35면)하는 등 노골적인 비판이 주를 이었다. 특히 3월 6일자 31면에 실린 ‘이해찬의 얼굴, 참여정부의 얼굴’이라는 제목의 칼럼은 그를 ‘안하무인의 싸움닭’, ‘검투사의 이미지’로 규정하면서 그의 투쟁은 우리의 정치문화를 한층 살벌하고 천박하게 만들었다며 다음과 같이 극단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이해찬 총리가 3·1절 골프 물의와 관련해서 자신의 거취문제를 숙고 중이라는 소식이 많은 사람에게 뜻밖으로 느껴지는 것은 이제껏 그가 오기와 오만과 독선과 아집으로 뭉쳐진, 남을 무시하고 경멸할 줄만 알았지 자기 성찰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비쳐져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소한 비난에도 눈에서 독기를 뿜으며 몇 배 사납게 반격을 하고, 국민의 여론이나 정서는 아랑곳조차 하지 않는

인간으로 보였던 이 총리는 싸움닭, 검투사 같은 이미지로 국민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다. 이해찬 총리는 완강하고 독선적인 표정으로 국민의 심기를 스산하게 하였고 독기에 찬, 거칠고 안하무인적인 말을 쏟아내어 국민을 섬뜩하게 하였다. … (중략) … 각 부처 간에 상충되는 업무를 초화시키고 모든 부처를 총괄하는 국정의 비전을 창출하고 국민의 정서를 파악해서 대통령에게 적절한 조언을 하는 총리의 역할에 이해찬 총리는 전적으로 부적격자였다.

반면 『한겨레』는 인간적 실수 프레임을 사용해 그의 행위를 단순한 실수로 묘사하며 그가 이러한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3월 9일자 26면에 실린 ‘출서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도덕성의 상징인 그가 골프광으로 몰려 위기에 처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권력자들은 각종 로비스트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단지 그가 그 뒷에 빠졌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월 7일자 30면에 실린 ‘참을 수 없는 골프 유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대사에 빈틈이 없어 보이는 이해찬 총리가 골프장에 가면서 삼일절과 철도노조 파업을 챙기지 않았을 리 없다.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 뒀을 것이고 골프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리라. 여러 번 입방아에 올랐으면서도 골프에 관한 한 참을 수 없는 유혹 탓에 그가 판단을 그르쳤다고 본다”고 언급하며 예전에 자가용이 그런 구설수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아직은 골프가 그런 대상일 뿐이라며 동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내려진 도덕적 평가를 살펴보면 『조선일보』가 부도덕성 프레임을 사용해 그를 비난한 것과 대조적으로 『한겨레』는 인간적 실수 프레임을 통해 그의 행동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본다면 도덕적 평가 차원에서도 해당 정치인과 정치 성향에 따라 언론은 현실을 상이하게 구성하고 있었다.

#### (4) 해결책 제시 프레임 유형

다음으로 해결책 제시 프레임 유형을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그의 사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었고 『한겨레』는 뚜렷한 해결책 제시 없이 사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먼저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일제히 이해찬 총리 구하기에 나선 모습”이라고 묘사하며 청와대가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 문제없더라”며 한마디로 덮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전후 사정을 설명해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이 총리 사퇴하면 국가 틀 흔들린다는 청와대’ 3.8, 31면). 또한 청와대가 이해찬 총리의 골프 파문에 대해 ‘로비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총리를 적극적으로 감싸고 있다고 보았다(‘이 총리 골프 인파만파/ 인생에서 골프는 양보 못해’ 3.8, 5면; ‘청와대 이해찬 감싸기, 로비 없었다’ 3.8, 1면). 그러나 청와대의 표현대로 “결과적으로 뒷거래가 성사된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세 번에 걸쳐 골프를 치고 근신하겠다고 약속을 깨버리고 3·1절, 그것도 서민들이 철도 파업으로 발을 구르고 있던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골프를 치러간 이 총리의 거들된 행동은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총리의 처신 기준에 어긋난다”(‘이 총리 사퇴하면 국가 틀 흔들린다는 청와대’ 3.8, 31면)고 말하며 그의 사퇴를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이해찬과 정치 성향을 함께 하는 『한겨레』는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을까? 이해찬 골프 사건에서 이 총리의 태도를 비판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그런 이 총리가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처했으나(‘사임이나 유임이나... 이 총리 갈림길’ 3. 6, 1면), 그런 그가 물러나야 하는 이유를 심사숙고해 천천히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3월 8일자 23면에 실린 ‘이 총리 골프파문, 의혹부터 밝혀져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총리가 물러나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 퇴진 여부는 이 총리 주변에서 불법이나 편법, 비도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치 논쟁은 국민이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사퇴 논쟁을 부정하는 논지를 펼쳤다. 마찬가지로 3월 15일 3면 ‘이 총리사의 수용 결단 배경, 전망/노 대통령 자존심 접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노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에 고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관계 기관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명백히 밝혀주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하며 나중에라도 이 총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렇듯 이해찬 골프 사건은 정치인이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지만 해당 정치인과 정치 성향을 달리하는 『조선일보』는 사퇴 프레임을 사용해 이 사건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고 『한겨레』는 그의 사퇴를 심사숙고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 2) 최연희 성추행 사건에 대한 프레임 비교 분석

### (1) 문제 정의 프레임 유형

다음으로 두 신문은 최연희 성추행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자. 이해찬 골프 사건과 대조적으로 『한겨레』가 이 문제를 정치문제화 프레임임을 사용함으로써 정언유착의 구조적인 문제로 확대해 해석하고 있었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최연희 개인의 성추행 사건으로만 규정하고 정치문제화 되는 것을 지양하는 보도태도를 보여 주었다.

『한겨레』는 3월 10일자 M25면의 ‘그들의 카르텔’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나라당과 거대언론사(동아일보)와의 부적절한 상견례에 주목하면서 정언유착의 폐해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은…(중략)… 정치권과 언론의 유착이 만들어낸 추악한 정치 문화적 추태 중의 하나가 가시화된 것에 불과하다. …(중략)… 서로 긴장관계 유지해야 할 정치인들이 무엇 때문에 언론사 간부들을 ‘상견례’해야 했던 것일까?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보도지침인가? …(중략)… 한나라당과 거대언론사의 ‘상견례’는 우리 사회 폭력의 악순환에 기득권과 거대언론사가 여전히 두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응면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략)… 본질은 여전히 민중 알기를 물건처럼 알고 있는 ‘그들의 카르텔’이다.



더 나아가 『한겨레』는 한나라당에 비판의 초점을 맞추었다. 3월 6일자 22면의 ‘최연희 의원과 한나라당에 없는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나라당은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진실성이 부족하며 한나라당의 팔은 안으로만 굽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정치인 개인을 질책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한나라당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며 한나라당은 “최 의원이 탈당했다고 당의 부담을 덜어버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용인될 수 없는 의원의 성추행’ 2. 28, 31면).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 사건의 성격과 관련해 특정한 보도 경향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더 이상 정치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보도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있었다. 3월 1일자 41면 ‘여성단체… 강력 대처’라는 제목의 기사는 한나라당이 “성추행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한나라당 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앞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박근혜 대표의 발언만을 전하고 있었다.

이처럼 『한겨레』는 정치문제화 프레임을 사용해 그의 행위를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구조적 차원과 해당 정당까지 확대시켜 문제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최연희 성추행 사건을 단순히 남녀의 ‘성추행’ 사건으로만 한정짓고 더 크게 정치문제화 되는 것을 경계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 (2) 원인 진단 프레임 유형

다음으로 원인 진단 프레임 유형을 살펴보면 『한겨레』는 가부장제 문화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책임 프레임을 사용해 남성 중심적인 의식을 가진 ‘최연희’ 개인을 비난하고 있는 반면 『조선일보』는 사회책임 프레임을 통해 이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한국 사회의 왜곡된 가부장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보고 있었다.

『한겨레』는 성폭력을 단지 사적인 일로 여기는 시각을 비난하면서(‘누가 성폭력의 본질을 흐리나’ 3. 8, 26면) 성추행은 피해자에게 크나큰 상처를

좁으로 타인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하고 남성 중심적인 가해자를 비난하였다 ('여자들은 왜 죽임을 당하는가' 3. 17, 27면). 3월 3일자 26면의 '성추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 힘 있는 사람들의 성의식 수준을 알 수 있다며 경제만이 아니라 성에 대한 양식도 압축 성장을 시켜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같은 날 27면 '여성은 열외 인간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여자를 남자의 노리개로 삼아온 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아직도 건재하다고 비난하였다. 3월 14일자 30면의 '썰렁한 착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성추행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썰렁한 착각은 금물"이라며 최연희가 근본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대상은 지역구민도 정당도 아닌 바로 피해 여기자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겨레』는 3월 15일자 지면에서 26면과 27면에 걸쳐 '끔찍 마! 성폭력사회'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실어 성폭력과 성추행의 실태를 고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피해자에게' 3. 15, 26면, '피해자 주변사람들에게' 3. 15, 26면, '가해자 책임 명백히, 피해자 보도 철저히' 3. 15, 27면).

『조선일보』는 『한겨레』의 시각과는 상이하게 사회책임 프레임을 사용해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단지 그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가부장적인 문화가 더 큰 문제라며 그를 두둔하는 의견 기사를 실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도덕성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연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사건 대부분이 가해자가 남자이고 우월적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비춰 본다면 충동폭발 증후군은 일종의 가부장제 권위의 파편들"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가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충동범죄 잇따르는 이유는' 3. 25, 29면)고 언급함으로써 가해자 역시 가부장제 문화의 또 다른 피해자라는 인식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조선일보』는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와 마초문화로 보고 있었다.

원인 진단 프레임 유형에서 『한겨레』는 개인책임 프레임을, 『조선일보』는 사회책임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 (3) 도덕적 평가 프레임 유형

앞선 이해찬 골프 사건과는 대조적으로 도덕적 평가 프레임 유형에서 『한겨레』는 부도덕성 프레임, 『조선일보』는 인간적 실수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한겨레』는 성추행 사건을 저지른 최연희를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3월 22일자 23면에 실린 ‘최연희 의원, 버티기로는 명예 회복 못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연희를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예의를 결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그의 행위는 공인으로서 윤리적·도덕적 책임을 저버린 행동으로 의원직을 고수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볼 때 그는 ‘식물인간’<sup>4)</sup>이므로 그의 정치적 생명은 이미 끝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조선일보』는 인간적 실수 프레임을 사용해 성욕 앞에서 사람은 쉽게 무너지기 쉽고 최 의원 역시 누구나 미끄러워 넘어지는 화류암(花柳岩)<sup>4)</sup>을 지나다가 미끄러졌을 뿐인데 여차하면 옷까지 벗게 생겼다(‘화류암(花柳岩)’ 2006. 3. 3, 34면)며 그가 곤경에 처한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이렇듯 최연희 성추행 사건에서의 도덕적 평가 역시 두 신문이 각기 부도덕성 프레임과 인간적 실수 프레임을 사용해 해당 정치인과 신문의 정치 성향에 따라 해당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이 상이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4) 해결책 제시 프레임 유형

다음으로 해결책 제시 프레임 유형을 살펴보면 이해찬 골프 사건과는 반대로 『한겨레』는 그의 사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했고 반면에 『조선일보』는 뚜렷한 해결책 제시 없이 사퇴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4) “화류암(花柳岩) 전(前)에 활로가 다(多)하니 행인(行人)이 도차(到此)에 진차타(盡蹉跎)라!” 번역하면 “화류암이라고 하는 바위 앞에는 미끄러운 길이 많아서 지나가는 행인이 여기에 이르면 떠나없이 모두 미끄러지고 만다”는 뜻이다. ‘정본능엄경(正本楞嚴經)’에 나오는 문구이다. 위 문자에서 ‘화류암’은 인간의 색욕(色慾), 즉 성욕을 상징한다. 깊은 공부에 들어가려면 성욕을 컨트롤해야 하는데 인간은 이 성욕 앞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깊은 공부가 어렵다는 한탄이기도 하다(‘화류암’ 3. 3, 34면).

『한겨레』는 3월 4일자 19면의 ‘자정능력 없는 국회, 국민이 나서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연희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그의 의원직을 사퇴시키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 “우리 국회는 한마디로 자정능력이 전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국회는 진정 개선 의지가 있다면 논의 단계부터 국민들에게 맡기라. 이와 별도로 이번 기회에 문제 의원을 임기 중에 심판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며 만약 국회가 못한다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부패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사퇴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하고 있었다. 즉 사건의 해당 정치인과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는 『한겨레』는 그의 사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와 달리 『조선일보』는 3월 3일자 5면의 ‘큰소리 한나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연희가 이미 한나라당을 탈당했는데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할 필요가 있냐고 언급하고 있다. 3월 13일 5면(‘이총리 퇴진… 행자부, 정권 허수인’)에서는 “최연희는 현 정부에서도 탐낼 만한 능력과 신망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적 신뢰 등을 폭넓게 고려해 처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의 사퇴에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렇듯 최연희 성추행 사건은 정치 성향을 달리하는 『한겨레』는 사퇴 프레임 사용에 그의 사퇴를 적극 주장한 반면 『조선일보』는 그의 사퇴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 3) 두 사건의 프레임 비교

앞서의 분석을 토대로 두 사건에 대한 신문들의 프레임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보다 쉽게 비교하면서 각 프레임별 양적인 차원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를 함께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2>이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신문은 각 사건에 대해 매우 대조적인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사건과 신문의 뉴스 프레임 비교 및 양적 분석결과  
단위: 건수, ( )는 %

엔트만의 프레임 정의	이해찬 골프 사건		최연희 성추행 사건	
	조선일보	한겨레	한겨레	조선일보
문제 정의	정치문제화 프레임	탈정치화 프레임	정치문제화 프레임	-
	16(17.2)	10(13.9)	9(17.7)	4(16.0)*
원인 진단	로비 프레임	-	개인책임 프레임	사회책임 프레임
	35(37.6)	28(39.0)*	15(29.4)	5(20.0)
도덕적 평가	부도덕성 프레임	인간적 실수 프레임	부도덕성 프레임	인간적 실수 프레임
	16(17.2)	9(12.5)	5(9.8)	2(8.0)
해결책 제시	사퇴 프레임	-	사퇴 프레임	-
	26(28.0)	25(34.7)*	22(43.1)	14(56.0)*
합계	93(100.0)	72(100.0)	51(100.0)	25(100.0)

\* 관련 기사의 현황임.<sup>5)</sup>

먼저 문제 정의 차원에서 이해찬 골프 사건에서는 『조선일보』가 최연희 성추행 사건에서는 『한겨레』가 각기 사건을 정치문제화하는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두 신문 모두 자사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정치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정치적 문제로 확대, 비화하려는 의도를 보였음을 말해준다. 반면 두 신문 모두 정치적 입장이 같은 정치인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탈정치화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돌리는 보도 태도를 보여주었다.

- 5)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측면들은 프레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관련 기사의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프레임은 단순히 선택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더욱더 능동적으로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Reese, 2001, p. 10)일 뿐만 아니라 세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인 결합이 핵심적인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하는 기준들을 제시하는 과정(Hall, Reese, 2001, p. 11에서 재인용)이라는 포괄적인 측면을 감안해 해당 프레임 관련 기사까지 이 표에 포함시켰음을 밝힌다.

최연희 성추행 사건에서 『조선일보』는 특정한 프레임이 도출되지 않았지만 문제 정의와 관련된 기사가 4건(16.0%)으로 나타났다.

원인 진단의 차원에서도 이해찬 골프 사건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로비 프레임을 사용해 비판적으로 보도하였다. 반면 『한겨레』에서는 특정한 프레임이 도출되지 않았지만 사건의 원인과 관련된 기사가 28건(39.0%)으로 나타났다. 최연희 사건에서는 『한겨레』가 개인책임 프레임을 사용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으며 『조선일보』는 사회적책임 프레임을 통해 최연희 개인의 책임을 회색시키는 보도 태도를 보였다. 양적인 측면에서도 이 차원은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덕적 평가 차원에서는 이해찬 골프 사건에서 『조선일보』가 부도덕성 프레임을 사용한 반면, 최연희 사건에서는 『한겨레』가 부도덕한 인간으로 그를 평가하였다. 반대로 이해찬 사건에 대해서는 『한겨레』가, 최연희 사건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각기 사건을 해당 정치인의 인간적 실수로 보며 안타까워하는 태도를 보였다. 즉 해당 정치인과 정치 성향이 다른 신문의 경우에는 그를 부도덕한 인간이라고 평가하고 정치 성향이 같은 경우에는 인간적 실수라며 그를 감싸는 보도 태도를 보여주어 대비를 이루었다.

문제의 해결책으로 각 사건의 정치인과 정치 성향을 함께 하는 신문은 사퇴 프레임을 통해 사퇴를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정치 성향을 달리하는 신문은 특정한 프레임이 도출되지 않는 않았지만 관련 기사를 통해 사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해찬 골프 사건에서는 『한겨레』가 25건(34.7%), 최연희 성추행 사건에서는 『조선일보』가 14건(56.0%)의 관련 기사가 나타났다. 양적인 면에서 보면 이 차원의 프레임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밝혀져 정치적 성향을 달리 하는 정치인에 대한 공격의 호기로 삼았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윤리적으로 질타를 받을 만한 유사한 사건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이해찬 골프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면서 최연희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한겨레』는 이해찬 골프 사건에 대해서는 우호

적이면서도 최연희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말해 두 사건에서 신문들은 해당 정치인과 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프레임을 달리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이해찬 골프와 최연희 성추행 사건을 중심으로 언론이 정치 현실을 얼마나 상이하게 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는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대상으로 뉴스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엔트만(Entman, 1993)의 프레임 정의에 따라 두 신문은 해당 사건의 문제 정의 차원에서는 정치문제화/탈정치화 프레임을 사용했고, 원인 진단 차원으로는 로비 프레임과 개인책임/사회책임 프레임, 도덕적 평가는 부도덕성/인간적 실수 프레임, 해결책 제시는 사퇴 프레임을 사용해 각각의 사건을 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달리 구성해 나가고 있었다.

종합적으로 두 신문은 두 사건을 상이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이해찬 골프 사건을 『조선일보』는 부적절한 시기에 골프를 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덕이 있는 새로운 총리를 뽑자고 언급한다. 이에 반해 『한겨레』는 골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실수를 저질렀고 결국 위기를 맞게 된 그를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같은 방식으로 최연희 성추행 사건에서는 『조선일보』가 이 사건은 단지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인 성욕이 폭발해 일어난 것으로 그가 공인으로서 안타까운 실수를 했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 자체를 추방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와 반대로 『한겨레』는 그가 공인으로서 윤리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 그를 꼭 사퇴시켜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등 두 신문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결국 두 사건은 분명 공인이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비슷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는 『조선일보』

와 『한겨레』는 자사가 추구하는 정치적 성향에 부합되는 경향성을 보이며 뉴스 프레임을 달리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언론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정치현실을 상이하게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제 사건을 대상으로 두 사건이 언론의 정치 성향에 따라 어떻게 현실이 달리 구성 되는지를 뉴스 프레임 방법과 의견 기사의 질적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한국 언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주요한 한 측면을 밝힐 수 있었는데, 이는 유사한 사건이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이 일어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언론의 정치 성향에 따라 보도 내용이 판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렇게 볼 때 언론은 다양한 입장들 중에서 미디어 프레임을 통해 각 사건과 자사의 이념적 성향에 맞는 입장을 선택해 의제화함으로써 사건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여론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상이한 프레임을 사용함으로써 드러난 우리 언론의 극단적인 양자 구도는 보도의 정확성이나 언론에 대한 신뢰도 부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언론에 의해 현실이 상이하게 구성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면 특정 매체가 지니는 보도 태도에 따라 그 매체를 접하는 사회의 여론 또한 다르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뉴스 또는 미디어 담론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실로서 그것은 정치적 ‘바깥 세계’에 대해 ‘머릿속 그림’을 틀 짓는다고 보며, 여론이란 언론의 담론과 공중의 해석 과정이 끊임없이 상호 교직하는 가운데 생성·변화하는 사회적 담론이라고 표현한다(양승목, 1997, 33쪽). 이렇게 볼 때 언론은 공공의 장으로서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다양한 문제의 의견 수렴 및 올바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뉴스의 틀을 구성해 나감으로써 진실에 가까운 사회현실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언론의 보도 형태일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언론이 어떠한 프레임을 사용해 현실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수용자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Iyengar & Simon, 1993; Shah, Domk & Wackman, 1996; 이준웅,



1997/1998)는 전제 아래 텍스트 분석만을 실시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해찬 골프와 최연희 성추행 사건의 뉴스 텍스트 분석결과로 얻어진 프레임의 유형과 구성방식을 실질적으로 수용자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하는지를 살펴보는 수용자 연구를 차후 실시한다면 좀 더 발전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해찬 골프와 최연희 성추행 사건의 보도 프레임이 언론의 정치 성향 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 프레임 되는지는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뉴스의 정보원 분석과 뉴스 제작자(기자)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 정교한 연구방법을 사용해 종합적인 연구를 시도하고 적용해 본다면 좀 더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Ⅰ 참고문헌

- 강내원 (2002). 사회갈등 보도 기사의 비판적 읽기: 언론의 새만금 간척사업 프레임에 대한 갈루아 래터스 분석. 『한국언론학보』, 46권 3호, 5~44.
- 김선남 (2002). 매매춘 관련 TV뉴스의 프레임 분석. 『한국방송학보』, 16권 2호, 41~76.
- 김수정·조은희 (2005). 생명과학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뉴스 프레임 비교연구. 『한국언론학보』, 49권 6호, 109~139.
- 김원용·이동훈 (2004). 신문의 보도 프레임 형성과 뉴스 제작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8권 4호, 351~380.
- 김정현 (2001). 언론의 사회적 현실구성에 관한 논의. 『한국언론학보』, 45권 4호, 35~75.
- 김준철 (2002). 언론의 권력과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의미. 『출판문화학회보』, 10권 1호, 16~35.
- 김훈순 (2004). 한국 언론의 젠더프레임.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27호, 63~321.
- 나미수 (2004).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정보학

- 보』, 통권 26호, 1~33.
- 박경숙 (2002). 집단 갈등 이슈의 방송뉴스 프레임 분석: 의약분업 뉴스프레임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권 2호, 310~240.
- 박선희 (2001). 언론개혁에 관한 인터넷 뉴스 프레임 분석. 『한국방송학보』, 15권 2호, 81~119.
- 박성희 (2006). 위험보도의 위기구축 기제 프레임 분석: 식품안전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5호, 181~210.
- 박승관·주용범 (1995). 제5공화국 말기 개헌제의 변동과정에 관한 미디어 프레임 분석. 『언론정보연구』, 32권, 105~151.
- 백성기 (1997). 제 15대 총선 보도시의 가십기사 유형과 심층구조. 『한국언론학보』, 통권 41호, 41~107.
- 양승목 (1997). 언론과 여론: 구성주의적 접근. 『언론과 사회』, 17권, 6~40.
- 양정혜 (2001). 사회갈등의 의미 구성하기.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284~315.
- 원만해·채 백 (2007).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보도에서 나타나는 중앙지와 지역지의 뉴스 프레임 비교연구. 『한국언론학보』, 51권 1호, 199~228.
- 유세경·김미라 (2002). 미국, 한국, 중국 일간지의 '9·11 테러' 뉴스보도 비교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18호, 166~198.
- 이귀옥·박조원 (2006). 식품위해 보도의 뉴스 프레임 분석: 김치파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0권 5호, 260~303.
- 이준웅 (1997). 언론의 틀 짓기 기능과 여론의 변화. 『언론과 사회』, 통권 17호, 100~135.
- \_\_\_\_\_ (1998). 후보 이미지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사회 인지론적 설명. 『한국언론학보』, 43권 2호, 243~284.
- 임동욱 (2003). 정치보도 당파성: 가식적 공정성보다 솔직한 당파성 필요. 『신문과 방송』, 9월호, 72~75.
- 정재철 (2001). 미국 대 테러 전쟁에 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분석: KBS 저녁 9시 뉴스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13권, 257~278.
- \_\_\_\_\_ (2004). 한국 신문의 유전자 연구 프레임 비교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25호, 135~162.
- 차배근 (1990). 『사회과학연구방법』. 서울: 세영사.
- 최낙진 (2004). 지역신문 뉴스 프레임 비교: 핵 폐기장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

언론정보학보』, 통권 27호, 284~316.

- Alger, D. E. (1989). *The Media and politic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Binder, A. (1993). Constructing racial rhetoric: Media depiction of harm in heavy metal and rap music.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1), 753~767.
- Entman, R. M. (1991).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s in narratives of KAL and Iran Air inci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41, 6~27.
- \_\_\_\_\_. (1993). Framing: Towards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Gamson, W. A.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1), 1~37.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eft*.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New York: Harper & Row.
-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Iyengar, S. & Simon, A. (1993). News coverage of the Gulf and public opinion: A study of agenda-setting, priming, and framing. *Communication Research*, 20(3), 365~383.
- Page, B. (1996). *Who deliberates? Mass media in the modern democra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n, Z. & Kosicki, G. M. (1993). Framing analysis: An approach to news discourse. *Political Communication*, 10, 55~75.
- Reese, D., Gandy, H. & Grant, E. (2001). Framing public life: Perspectives on media and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world. In Reese, D (Eds.), *Prologue-Framing Public life: A bridging model for media research* (pp. 7~31).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cheufele, D. A. (1999).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49(4), 103~122.

- Sermetko, H. A. & Valkenburg, P. M.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93~109.
- Shoemaker, P. & Reese, D. (1996).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2nd Ed.). White Plains, NY: Longman.
- Shah, D. V., Domke, D. & Wackman, D. B. (1996). To thin own self be true: values, framing, and voter decision-making strategies. *Communication Research*, 23(5), 509~560.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최초 투고 2007. 8. 31, 최종 원고 제출 2008. 2. 4)

## The Political Attitude of Newspapers and the Coverage of Political Scandal

Jung-Ah Kim

Ph D. Candidate

Dept. of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aek Chae

Professor

Dept. of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news frames between Chosunilbo and Hankyereh which have shown contrastive political attitude. The coverage of two political scandal, the Prime Minister Lee Haechan's golf happening and an Assemblyman of opposition party Choi Yeonhee's sexual harassment were analysed. The two political scandals were occurred one after the other and had some similarities. But two newspapers showed very contrastive frame on the two political scandals. On the Prime Minister Lee's scandal Chosunilbo showed politicizing frame, lobby golf frame, immorality frame, resignation frame. In contrast Hankyereh used depoliticization frame and human error frame. On the Assemblyman Choi's scandal Hankyereh showed politicizing frame, personal responsibility frame, immorality frame, resignation frame. But Chosunilbo used social responsibility frame and human error frame. In conclusion two newspapers showed very contrastive coverage according to the respective political attitude.

Key words: news frame analysis, newspaper, political communication, Chosunilbo, Hankyereh.